

##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소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4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17.

발 의 자 : 이소영 · 주철현 · 김경만  
이광재 · 김민철 · 윤준병  
민형배 · 조오섭 · 홍정민  
한병도 · 박영순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,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, 현재는 ‘심판-조정 연계제도’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.

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-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

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의3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44호), 「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42호) 및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44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심판-조정 연계 특례) ① 「특허법」 제164조의2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2조의2 및 「상표법」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-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하되, 같은 조 제3항의 “조정신청이 있는 날”은 “위원회에 회부된 날”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49조의3(심판-조정 연계 특례)</u></p> <p>① 「특허법」 제164조의2, 「실용신안법」 제33조, 「디자인보호법」 제152조의2 및 「상표법」 제151조의2에 따라 <u>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각자 심판-조정 연계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<u>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3항을 준용하되, 같은 조 제3항의 “조정신청이 있는 날”은 “위원회에 회부된 날”로 본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회부된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2조에 따른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.</u></p>